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OCTOBER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8



###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늦여름 청명한 날씨에 회원 27명이 Split Rock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Bronx 해변가에 위치한 Split Rock 골프장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공원인 Pelham Bay Park 안에 있으며, Pelham Bay Golf Course와 함께 뉴욕시의 유일한 36홀 골프장입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민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으로, 골든클럽 회원들이 주로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잘 손질된 fairway와 green, 그리고 도전적인 코스(par70: white 6304y, red 5249y)와 좋은 날씨는 골프의 즐거움을 한껏 더해준 날이였습니다. 여주영 회원이 후러싱 맛집에서 가져온 김밥에 운동이 끝난 후 클럽에서 제공한 음식마저 좋아서 오늘은 각자 공만 잘 치면 되는 하루였습니다. 모처럼 골든클럽의 원로이신 권태전님과 임호순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 수 있어서 좋았고 회원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요 며칠사이에는 운동 하기에 좋을 정도로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가을이 가까이에 와 있음을 새파란 하늘과 바람결에 들려오는 낙엽소리로 알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하나의 공간이 흔들리는 것을, 우주의 숨결이 스쳐 지나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어령 시인은 바람소리가 우주 만물이 내는 목소리라는 것을 꿰뚫어 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봄에는 나른한 아지랑이 봄내음을 맡으면서, 여름에는 찬란한 들판의 초록색을 보면서, 가을에는 낙엽과 바람 소리로 세상을 음미하면서 사색하는 골퍼들이야말로 온몸으로 사계절을 체험하는 진정한 자연인들이 아닐까요? 가을의 문턱에서 마음은 벌써 한가위 황금빛 들판으로 달려가 봅니다.

오순문(사대68)

## 10월 골프대회

10월 골프대회는 뉴욕동창회의 골프행사로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교통이 편리한 Bronx의 Pelham Golf Course에서 열리니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12일 11시 Tee off

**장소:** Pelham Golf Course

**주소:** 870 Shore Rd, Bronx, NY 10464

**시상식 및 디너:** 골프장 라운지

**회비:** \$120

**문의 및 참가신청:** 김정필 (201-965-7759)



## 10월 산행

어느새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 한복판에 아침, 저녁은 선선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골든클럽 회원들 모시고 Woodbury Outlet 서북방에 있는 Schunemunk Mt 능선길을 걸으며, 짙어가는 가을 단풍도 즐기고 평소에 시간이 없었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추억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시간 운전 거리에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하이킹 즐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뉴욕에 살고있는 보람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 많이 참여하여 즐겁고 건강한 하루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19일(목) 9:00시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사이 Commuter parking lot

**산행예정:** Schunemunk Mt, Otterkill Rd Trailhead

**준비물:** 점심도시락/샌드위치와 마실물, Hiking Pole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12월 Myrtle Beach Golf Trip

2018년까지 정기적이었던 겨울 골프여행으로, 지난 3년간 West Palm Beach, Florida여행을 마치고, 올해는 너무 춥지 않은 12월 중순 Myrtle Beach 골프여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12월 10일(일)-16일(토)

**여행지:** Legend Resort, Myrtle Beach, South Carolina

12월 10일/16일: Travel to and from Myrtle Beach

월-금요일: Golf 5 rounds, Legend Resort Courses

**예상경비(1인당):**

Golf & Villa(4 per 2BR)	\$570
Transit High-roof Van rent	\$200
저녁식사 및 공동경비	\$200
합계	\$970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비 \$170

\*개인 차량 사용 경우, 비용공제 \$200

참가 신청 회원은 Legend Resort에 지불할 '비환할 예약보증금' \$200과 독방, 개인차량 사용 여부를 10월 10일까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문의 및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뉴욕동창회 행사

### 뉴욕동창회 피크닉:

9월 30일 (토) 오전11시-오후3시

Rockland Lake State Park, New York

회비 \$50 /동문 (가족은 무료)

###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10월 12일 (목) 오전 11시

장소: Pelham Golf Club, New York

회비: \$120

### 뉴욕동창회 송년회

12월 2일 (토)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 8월 골프대회 보고

**날짜:** 8월 31일

**장소:** Walkill Golf Club, NY

**참가인원:** 28명

김동건 김병순 김정필 오순문 이영범 조달훈 천병수 최병우 홍종만 김광현 김영만 김한중 민준기 박상원 손갑수 우규환 이상무 이웅대 이종대 임도혁 한태진 송건숙 안용희 이행순 정영자 조승자 홍예경 홍정표

**입상자:**

- 1등 조승자
- 2등 김한중 한태진
- 3등 최병우 이종대 임도혁

**Close Pin** 최병우 김영만 오순문 김광현

**경비결산:**

수입:		
참가비:	\$3,360	
지출		
그린피와 식사	\$2,470.26	
점심	\$260	
상금	\$360	
<b>결산:</b>	<b>\$269.74</b>	

## 9월 골프대회 보고

**날짜:** 9월 21일

**장소:** Split Rock Golf Club, NY

**참가인원:** 27명

계동휘 김병순 김승호 김정필 오순문 권정덕 권태전 김광현 김영만 김창수 박상원 박희병 성기로 송웅길 우규환 윤선구 임도혁 임호순 홍종만 Mrs.김창수 송근숙 송현자 여주영 이행순 정영자 홍선경 홍예경

**입상자:**

- 1등 홍종만
- 2등 우규환 김광현
- 3등 이행순 박희병 김영만

**Close Pin:** 홍종만 홍예경 성기로 윤선구

**경비결산:**

수입:		
참가비:	\$3,240	
지출		
그린피와 식사	\$2,885	
점심	\$259	
상금	\$360	
<b>결산:</b>	<b>-\$255</b>	



### 이준행 명예회장 방문

9월 4일 Labor Day 휴일에 이준행 회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거동은 여전히 불편하시고 wheelchair에 의존하고 계시지만, 식욕은 왕성해 지셔서 평소에 즐기시던 만하탄 고급식당도 다시 찾아 나들이한다 하십니다.

골든클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여전하시어, 골든클럽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라고 당부하시며 발전기금 몫으로 \$10,000 check를 주셨습니다. 골든클럽 운영위원회에서는 오순문 부회장, 김정필 사무총장과 김병순 위원을 주축으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새로운 활동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홍종만)



Split Rock 골프 입상자



Split Rock 골프 Close pin 입상자

## My Cinderella Story

■ 박상원 (음대 69)

이 나이에 신데렐라 얘기가 윈 말이고...?! 미국 어린이들뿐 아니라 세계의 어린이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진데 아직도 늙은 나는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살아보니 내가 신데렐라였음을 늦게나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6.25가 나던 해에 태어났다. 지도에도 없는 경기도 이천군의 산골마을... 신데렐라가 태어나기 좋은 ... 허름한 시골.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오는 행운을 얻었다. 중학교 진학은 해야 하는데...친구가 음악학교에 간다가에 나는 무얼하는 음악인지도 모르고 시험을 봤는데 7:1 의 경쟁에 합격을 했다. 그 친구는 떨어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 보니 국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을 전공으로하고...인생 시작하기도 전에 국악인으로 살도록 대못을 박아놓고 사라진 그는 나의 첫번 만난 어린 왕자.

6년을 국비 장학생으로 국악인을 기르는 양성소라서 돈 걱정은 안 했으나, 우중충한 사춘기를 보내며 오직 희망은 서울대에 가서 멋진 신세계에 등용하는 꿈이었다. 그 국악학교는 오직 서울대 국악과에만 진학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법이 있었고, 다행히 서울대에 입학해서 화려한 신데렐라로 비상을 하였다. 항시 얘기하는 말이지만, 서울대 들어간게 내 인생에 최고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69학번, 유신 첫세대인 우리는 데모를 많이해 학교는 늘 문을 닫았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느라고 늘 바빴다.

가야금 교습생 중에 간호사로 미국에 취업하러 가는 제자가 있었다. 영어 회화는 어떻게 배웠느냐고 물으니 돈도 별로 안들이고 배웠다면서, 내자 클럽을 소개해 주었다. 종로구 내자동에 미군 장교 클럽이 있는데 그들 중 사회 봉사도 영어를 가르쳐주는 클럽이고, 용돈 정도의 회비를 회원들이 내서 강의실을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나의 신분상승의 욕구는 그 클럽에서 제대로 발휘되서 반년만에 부회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였고, 그 시절에 영어 원어민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 간호사는 나를 미국에 오게된 토대를 만들어준 마법의 요정이었다.

군대는 포병장교로 최전방에 근무하였는데 GP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게된 보병 장교는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그 먼 최전방까지 육군 본부에 제일 높으신 분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했다. 나는 놀랐다. 공부 잘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건성건성 공부한 대학생활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나

는 나의 분야의 최고의 지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 장교에게 "갈매기의 꿈"을 선물로 주며 나의 진로를 진심으로 정하게 해준 그 장교를 내가 만난 육군장교 왕자로 삼는다. 그가 내게 해 준 것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군에서 시간나는대로 대학원 입시공부를 열심히 했다.



나는 제대후 바로 대학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15 명의 현역 응시자중에 3명의 합격자중에 들어 교수님의 신뢰를 받게된다. 처음으로 교수님의 인정을 받으니 신나게 공부와 연구를 했다. 졸업할 무렵에 교수님이 뉴욕에서 열리는 UN the year of a child 라는 국제 예술 회의에 나를 추천해 주셨다.

8 개월간 뉴욕에서 미국 USAID 장학금을 받고 한국예술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뉴욕 WBAI FM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토요일 밤 12시에 하는 프로 였다. 그야 말로 신데렐라가 집에 돌아가야하는 시간이었는데,... 다음날 World Music Institute 에서 연락이 와서 독주회를 초청하는 것이었다. 역시 뉴욕은 기회의 땅. 독

주회를 하고 The Village Voice 에 사진까지 곁들여 긴 호평으로 이루어졌고 Carnegie Recital Hall 에서 독주를하고, Goethe Institute 장학금으로 독일에가서 공연예술 공부도 하고, 유럽에서 파리를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연주여행을 하였는데, 그때 나는 연주자로 사는 법을 터득해서 뉴욕을 근거지로 연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삶은 막연히 꿈꿨던 신데렐라 그 자체였다.

쓰고 보니 순진스럽게 자기 자랑만 한듯하여 여기서 끝내려한다. 뉴욕에서 어떻게, 내가 국악과를 나온 가야금 연주자로 먹고 살았는지....그리고 어떤 왕자가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었는지, 그후 많은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나는 어려운 삶을 구비구비 돌아오며 항시 왕자님을 만났고, 왕자님은 나의 인생을 한발 한발 더높은 곳으로 안내하여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었다. 신데렐라의 의붓어머니처럼, 쓸데없는 어려움과 구박은 항시 있다.

서울대 동창회에서 사무총장, 회장, 평의원등 힘 단는데까지 열심히데, 이 허름한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준게 고마워서이다, 이제 골든클럽의 회원이 되어 황금구두를 신은 신데렐라가 되었다. 구두 한 짝을 살짝 떨어뜨려서 멋진 왕자님이 나를 찾아 헤메이도록 유인해 볼까나?!

## 한국인과 골프

■ 손대홍 (미대79)

최근 한국 TV방송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골프산업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LPGA 골퍼 출신 **박세리**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이 아닌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하는데, 혹시 해서 찾아보니 LPGA Tour에서 25승과 한국에서 개최된 LPGA Tour에서 14승으로 통산 39승을 한 것으로 나와 생각 보다 많은 우승 횟수에 약간은 놀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가난해졌던 1997년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IMF 사태 때 박세리의 골프우승이 많은 국민들을 골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가 최종라운드에서 선두를 다투면 언제나 TV 중계를 했었는데 특히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면 골프 룰은 잘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다방이나 음식 점 등에 설치된 TV앞에서 박세리 선수를 응원하며 박찬호가 던지는 LA Dodgers 의 야구경기와 함께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니, 남자 골퍼로는 **최경주**가 PGA에서 8번의 우승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대회 우승기록이 없어서인지 박세리와 같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기억에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2011 Players Championship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5대 메이저로 불리는 대회라고 하니 최경주도 대단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PGA에서 우승한 한국 여자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2021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의 **고진영**의 우승이 한국 선수로는 200번 째였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우승 기록이 있겠지요.



가장 많고 캐나다 560만명, 한국 535만명, 영국 340만명, 독일 210만명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를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데 아마도 일본은 골프의 인기가 식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았던 80년대말과 90년대 초, 당시 일본은 버블경기가 절정에 달할 때였는데, 도쿄의 연습장을 보면 택시운전사도 차를 세워놓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일본의 골프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동양인이 없던 PGA에 아오키를 시작으로 오자키 등의 일본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시작했고 도쿄 인근의 가장 비싼 프라이빗 골프클럽의 회원권은 당시 돈은 400만 불에 이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을 자기들의 본사로 초대하여 회사 헬기를 이용해서 골프장으로 데리고 가는 접대를 하였고 동네의 연습장은 하루 종일 타석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식은 것 같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골프장 모습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 보통 골프장의 그린피는 최소 200불 이상이며 주말에는 300불을 넘습니다. 그리고 명문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클럽들은 회원이 아니면 가는 것도 어렵고 특히 주말의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지만 간다고 해도 400불에 가깝습니다. NGF에 따르면 미국의 Public course 평균 그린피가 36달러라고 하니 한국 골퍼들은 6배 이상의 비용을 내면서 골프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 뿐일까요? 한국은 골프웨어가 무척이나 비쌉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골프 셔츠를 하나 백화점에 갔다 깜짝 놀랐

습니다. 반팔 셔츠가 최소 300불 이상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른 것은 볼 생각도 하질 않았는데 정말 한국 골프장에 가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패션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한국 골프장에서 저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골프 클럽백도 미국에서 가져간 허접한 것이고 옷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브랜드가 아닌 대중 입고 있는 것이어서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여간해서는 골프를 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서울의

[7면에서 계속]

## Banff National Park 하이킹 여행

■ 홍종만 (공대64)

캐나다 제일의 관광지 Banff 지역은, 2003년 뉴욕 제일여행사 골프/관광여행 때 우연히 의대 백승원 동문과 함께 여행한 이래, 2016년 8월 뉴욕한미산악회 Canadian Rockies trekking 에 이어 세번째 방문이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와 친근감으로 또 오고 싶어 지는 곳이다. 지난 두번과는 달리 Hiking Mania 산악회원 15명이 6 bed room villa를 빌려 편한 잠자리에, 풍요로운 음식으로 자취하며, 6-7마일 Day hiking 코스를 선택하여, 70-80대 연령에 무리하지 않는 9일간의 여정으로 9월 10일 Newark을 출발, Calgary로 향하였다.



첫날 산행, Johnston Canyon 은 Inkpot까지 왕복 6마일인데, 중간에 Lower Falls, Upper Falls 까지는 관광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협곡사이로 쏟아지는 폭포를 구경하려 관광객들로 붐비었지만, 계곡을 벗어나 등산로 1.5마일을 땀 흘리며 오르다 보니 앞이 확 트이며 기암절벽에 둘러싸인 평화스러운 분지가 나타난다. 여기 3개의 작은 지하수 연못이 있는데, 이 Mineral Springs은 항상 섭씨 4도로 일정하며 지하 암반두께와 광물질에 따라 초록-청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Yellowstone NP 의 Geysers처럼 봄 여름에는 밝은 푸른색, 가을 겨울에는 약간 녹색으로 색상이 조금 바뀐다고 한다.



다음날은 Lake Louise, 설악산 대청봉과 비슷한 해발 고도 1,732m 고산지역, 웅장한 암봉들과 침엽수림으로 둘러싸인 호수, 저멀리 끝자락에 보이는 Victoria Glacier(빙하)에서 흘러내리는 얼음과 석회암 부유물질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특유의 Turquoise(청록) 색상을 띠게 된다. 이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는 관광 인과

를 벗어나 지그재그 등산로를, 중간에 Mirror Lake에서 한숨고르고, 2마일정도 허덕거리다 보면 목적지 Lake Agnes에 도착하는데 호수도 아름답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Tea House에서 쉬었다 내려가거나, Little Beehive까지 1 마일 더 올라가 Lookout 지역에 가면 청록색 Lake Louise 전경이 발아래 펼쳐지며 주변 산들과 스키장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다음날, Lake Louise 남쪽 등산로를 따라 경사면을 2마일 가량 열심히 오르다 보면 수목지대를 벗어나면서 Rock-scramble(너털지대)가 나타나더니, 조금 더 올라가니 전망이 확 트이면서 땀을 말리며 쉬면서 간식을 먹기 좋은 초원지대가 나타난다. 건너편 산봉우리에 얹혀있는 Glacier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addleback Peak로 더 올라가던지 Paradise Valley로 하이킹을 계속하던지 갈림길 Saddleback Pass에서 하산 길로 접어들어 어렵지 않게, 그러나 모 든 사고는 하산길에서 일어나니 조심하며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Canadian Rockies에는 Banff, Yoho, Jasper, Kootenay 4개의 National Park이 있는데, Banff를 벗어나 Yoho NP에 있는 Emerald Lake 호수 주변 3.3마일을 걸었다. 주변 암봉의 바위가 봄철 Glacier 흐름에 조금씩 부식되며 호수로 흘러들어 Glacier milk(석회암 부유물질)를 만들고, silt(부식된 석회석 바위가루)가 서서히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데, 6월 초순 호수에 떠있는 silt가 가장 많을 때 햇빛에 반사되어 아주 멋진 Blue Turquoise 호수를 볼 수 있으며, 차츰 바

닥에 가라앉으며 Green Emerald 색상으로 바뀌게된다. 호수 경관 중심부에 자리한 Emerald Lake Lodge입구에 ‘예약이 확인된 손님만 들어오세요’ 라는 한국어 안내가 있는걸 보면 한국인 방문객도 꽤 많은 것 같아 친근감도 들었다.



오후에 Takakkaw Falls을 다녀왔는데, 전체길이 373m(본체높이 253m)로 캐나다에서 Vancouver Island의 Della Falls 다음 두번째로 긴 폭포이며, 중간 바위 턱에 부딪쳐 날아올라 흩어지는 물안개가 바람에 밀려 침엽수림지대를 한쪽의 그림처럼 자욱하게 펼쳐나가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Devils Tower, Mt Whitney, Mt Rainier,



Mt Baker등 큰 산을 함께 등반했던 13년 산후배 김희관 사장이 북부 Edmonton사슴목장(녹용약재)에서 잘 담긴 김치와 양념갈비를 Icebox에 가득 실고 내려와 뒤뜰에서 BBQ로 이룬 저녁을 함께 하고 부지런히 되돌아 갔다. 호시절 약재를 실고 800마일 서해안 Vancouver를 12시간에 걸쳐 밤새 운전하며 오가던 보약전성시대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무상을 되새기기도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 밤에는 비가 와도 아침이 되면 맑게 개였는데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날씨 예보로 계획을 변경하여 가까운 Canyon Creek Trail을 다녀왔다. 이슬비가 그치고 구름사이로 해가 반짝 보이더니 울창한 침엽수림 사이로 커다란 무지개 한줄기가 나타나 모두들 멈추고 사진을 찍었다. 하신길 주차장에서 한인 부부를 만나 인사를 나누다 보니, Golden 시내에서 일식집을 저녁에만 연다고 하며 좋은 고기 몇마리를 잡아가는 길이라고 하며, 지금이 연어 산란기로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를 구경하라고 알려준다.



원정대원 15명이 5 부부와 남성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발 전에10개조의 자원 매뉴를 종합, 저녁매뉴를 정하고 Calgary 도착 후 Costco와 한인 마켓에서 넉넉히 식품을 구입하였다. 식시당번 주관하에 여성대원 협조로 저녁식사를 준비하니, Spaggett, 비빔밥, 육개장, Beef Steak, 삼겹살구이, 미역국, 김치찌개, 호박죽 등 푸짐한 식사에 와인, 위스키 를 반주삼아 덕담나누고, 아침식사는 각자 취향에 맞춰 부패식으로, 점심 샌드위치도 각자 준비하니 여성회원들 불평도 없고 모두가 자급자족, 설겅기도 돌아가며 봉사하니 여성 회원들도 다른 때보다 여유있게 지낼 수 있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며 Banff 근교 Bow River를 지날 때, 1954년 개봉된 서부영화, River of No Return에서 마리린 몬로와 로버트릿참이 생명을 걸고 뗏목을 타고 급류를 통과, 인디언의 추격에서 탈출하는 명연기 장면이 떠올랐다. Calgary 공항에서 Rent car 3대를 반납하고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하며 1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내일 골든클럽 9월 골프 대회에 참가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된다.

[한국인과 골프 5면에서 계속]

경우 강남에 산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의 골프장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만도 최소 한시간 반 이상, 주말의 경우 오고 가는데만 서너 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어려운데다 한국과 같은 도로상황에서는 몇 살까지 운전이 가능할까요? 물론 프라이빗 컨츄리 클럽에 가면 기사를 데리고 온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기업의 고위경영자들로 북적이지만 퍼블릭 클럽이나 지방의 골프클럽에 가면 그렇게 나이든 주말 골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방의 골프클럽들도 펜데믹 기간동안 그린피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이 2021년에 비해 6% 이상 골프장의 내장객이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방에 있는 골프장에 가보면 젊은이들보다는 노인 골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린피도 싸고 자기가 받는 연금으로 골프를 치면 서도 충분히 레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캐디가 거의 없어 이용에 부담이 없기도 하고 클럽하우스의 메뉴가 싸고 무척 맛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이가 들어도 운전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갈 수 있는 것만큼은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골든클럽의 월례회에 나오시는 회원 선배님들께서는 적어도 미국에서 즐기는 골프만큼은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원 명단 (112명 / 2023-9-25)**

강교숙	김병순	배상규	윤상영	임창우	추재옥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안용희 허유선 홍사만 홍정표 홍지복 홍중만/ 홍예경
강에드	김상만	성기로	윤종숙	임호순	
강영선	김승호	손갑수	윤현남	정도훈	
계동휘	김영덕	손경택	이강홍	정수일	
고애자	김영만	손대홍/	이민제	조달훈/	
곽상준	김우영	남종현	이상무	조승자	
곽선섭	김익성	손옥화	이승준	정해민	
곽승용	김정필	송근숙	이준	조상근	
구달희	김종윌	송웅길/	이대연	주상진	
권문웅	김창수	송현자	이대영	주재양	
권정덕/	김치갑	송학린	이영범	진봉일	
홍선경	김태일	송혜순	이용대	천병수/	
권영대	김한중	신진식	이전구	천종화	
권태전	김현중	신응남	이종대	최구진	
김영천	노용면	오순문	이종석	최병우	
김광수	민준기	오용호	이준희	최수용	
김광현	박기환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김동건	박상원	우규환	이행순	최준희	
김문경	박준구	유무영	이흥빈	최진영	
김문언	박희병	윤선구	임도혁	최학주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9-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Split Rock Golf Club (41명)
	25일 (목)	Kaaterskill Fall 방문 (21명 참가)
6월	8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28명참가)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NJ (30명 참가)
8월	16일 (수)	Zoom Seminar - Well Dying (25명 참가)
	17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70명 참가)
	31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NY (28명 참가)
9월	21일(목)	Golf Outing- Split Rock Golf Club (27명 참가)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2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16일(토)	신년교례회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87명 / \$8700 /2023-9-25)**

강교숙	김병순	박기환	송혜순	이영범	진봉일	홍정표 홍중만 홍예경
강에드	김우영	박상원	신두식	이용대	천병수	
강영선	김익성	박희병	신진식	이전구	천종화	
곽선섭	김정필	배상규	오순문	이종대	최병우	
곽승용	김창수	성기로	오용호	이종석	최수용	
권영대	김치갑	손경택	오인석	이행순	최순채	
권정덕	김태일	손갑수	우규환	이흥빈	최준희	
홍선경	김한중	손대홍	윤상영	임도혁	최철용	
권태전	김현중	남종현	윤선구	임호순	한영수	
계동휘	권문웅	손옥화	윤현남	정수일	한용오	
김광현	김영천	송웅길	이대연	정해민	한태진	
김동건	김상만	송현자	이대영	주상진	한용희	
김문경	김종윌	송근숙	이상무	조달훈	한용웅	
김문언	민준기	송학린	이승준	조승자	홍선경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8명 / \$12,000/2023-9-25)**

강에드 200	김창수 300	오순문 200	임호순 300	홍중만 1000
권정덕 300	김치갑 80	오용호 300	정해민 1000	
김영천 300	김한중 200	우규환 200	최수용 1000	
계동휘 500	성기로 500	윤선구 200	최순채 100	
김광현 200	손경택 1500	윤현남 500	최준희 400	
김문경 200	신두식 200	이전구 1000	최철용 200	
김종윌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박상원 200 윤상영 200 이승준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9-25)**

이준행 3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에드 (사대60)      홍정표 (음대67)
- 노용면 (의대49)
- 박준구 (문리65)
- 손대홍 (미대79)
- 우규환 (사대10)
- 임호순 (공대52)
- 조달훈 (사대66)